

해남에 국내 최대 ‘해상풍력 배후단지’ 들어선다

전남도, 2025년까지 부지 조성
터빈·타워·하부구조·케이블 등
113만㎡에 연관기업 분양 추진

전남도가 해남 화원산업단지에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배후단지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전남도는 13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화원산업단 개발·지원 전담조직(TF) 제4차 회의를 열고 화원산업단 개발 실시계획 변경용역 착수보고, 산업단 개발 일정 설명, 종합토론 등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창환 전남도 정부부지사, 정대성 대한조선 사장, 이창배 KHI 본부장, 전남도와 해남군 관련 부서장, 한국전력공사, ㈜유신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전남도는 화원산업단 개발 실시계획 변경용역을 통해 2025년 말까지 205만㎡(62만평)의 부지 조성을 완료하고, 이중 113만㎡(34만평)를 해상풍력 연관 기업에 분양할 계획이다.



박창환 전남도 정부부지사(가운데)가 13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열린 ‘화원산업단 개발·지원 TF’ 제4차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이를 위해 대한조선과 용역 수행사인 ㈜유신을 통해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배후단지 조성으로 물막이 공사, 기업 설명회 개최, 분양 설명회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한다.

현재 화원산업단 개발사업은 공유수면 매립 등 주요 인허가가 완료됐고 일부 국공유지를 제외

한 토지 보상도 86%까지 이뤄졌다.

박창환 부지사는 “화원산업단은 2025년까지 개발 가능한 국내 유일 입해산업단으로 해상풍력사업 성공을 위한 중요성은 매우 크다”며 “화원산업단 개발이 적기에 완료되도록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화원산업단 해상풍력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현재 터빈·타워·하부구조·케이블 등 해상풍력 연관기업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남도와 대한조선은 터빈·타워·하부구조·케이블 등 해상풍력 연관기업 유치를 위해 화원산업단을 총 6공구로 나눠 개발을 진행하고, 2025년까지 배후단지 113만㎡ 조성을 완료해 상반기부터 입주기업이 공장을 설립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반도체, 해상풍력, 우주항공 등 첨단 전략산업의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기업 인센티브를 대폭 개선한 ‘전남도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시행규칙’을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근산 기자

전남도,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견결음

기반조성 기획과제 최종보고회
2030년까지 10개 센터 유치

전남도가 미래 먹거리로 지목한 친환경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오는 2030년까지 디지털 뉴딜의 핵심 기반 시설인 데이터센터 10곳을 유치하는 등 데이터센터 융복합산업 기반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전남도는 13일 도청에서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기획과제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는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추진단장인 박창환 전남도 정부부지사와 이정현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본부장, 최태중 전남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교수, 김준환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 계통운영부 차장 등 데이터 관련 분야별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3월 착수했다. 데이터센터 장비·통신 등 분야별 전문성 높은 자문위원을 활용해 주요 데이터센터 대상지의 전력, 용수 등 인프라 적합성을 분석했다. 또 재생에너지 및 지역 산업 연계 방안, 데이터센터 및 전후방 연관산업 기업 투자유치 전략 등을 담았다.

전남도는 그동안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고,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관련 부서 간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정책 제언에 주력했다. 또 순천·광양·해남에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립 업무협약과 도내 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및 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했다.

도는 데이터센터 전문가 의견 수렴과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글로벌 데이터센터 유치에 이번 연구 결과물을 본격 활용할 방침이다.

박창환 부지사는 “지역이 보유한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기반을 활용해 친환경적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며 “투자기업 애로 해소 등 기업 지원도 강화하는 등 전남이 데이터 산업의 중심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감사원, 한전공대 표적감사 중단해야”

전남도의원들 규탄 회견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도의원들은 13일 감사원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감사 중단을 촉구했다.

전남도의원들은 이날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에너지공대는 지난 정권에서 여야 합의로 제정된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됐다”며 “윤석열 정권의 서슬퍼런 권력에 지역의 희망이자 인재양성의 요람인 한국에너지공대가 표적감사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에너지공대는 2022년 개교 후 짧은 기간이지만 2년 연속 높은 입학 경쟁률과 우수한 교수·학생 유치 등을 통해 무너져가는 지역교육의 한 줄기 빛이 되고 있다”며 “이는 에

너지 위기시대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성장동력이며 국가균형발전에 대응하는 해결책이다”고 밝혔다.

도의원들은 “현재 진행중인 감사원 감사는 소위 보수단체의 허술한 감사청구 취지만을 근거로 벌이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발전과 미래를 보지 못하고 전 정권 죽이기의 연장선에 있는 정치적 감사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도의원들은 “현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적법하고 공정하게 설립한 한국에너지공대를 흔드는 일보다 기후변화 위기, 에너지 위기, 민생경제 위기, 지방소멸 등 당면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며 “감사원은 200만 전남도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감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정근산 기자

김영록 지사, 오늘부터 ‘도민과의 대화’

2년만 재개...타운홀 미팅

김영록 전남지사가 14일부터 보성·장흥군을 시작으로 ‘도민과의 대화’에 돌입한다.

지난해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로 2021년 이후 2년 만에 개최하는 ‘2023년 도민과의 대화’에선 글로벌 경기침체와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경제위기로 어려운 지역민의 의견을 듣고 시군별 역점시책을 공유할

예정이다.

올해 도민과의 대화는 전남도의 비전과 주요 사업 등을 도지사가 직접 도민에게 설명하고, 대화를 주재하는 등 참석자와 스킨십을 극대화하는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MZ세대 및 출향도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 현장 참여뿐 아니라 비대면 영상회의를 통해 쌍방향 소통방식으로 진행하고, 불임쪽



지를 통해 도지사가 즉문즉답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박현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대화에서 2023 전남 방문의 해를 비롯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4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10월) 및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11월) 등 대형 행사에 대한 성공 개최 분위기 확산에도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홍기월 시의원 “장애인 지원 확대해야”

광주시의 장애인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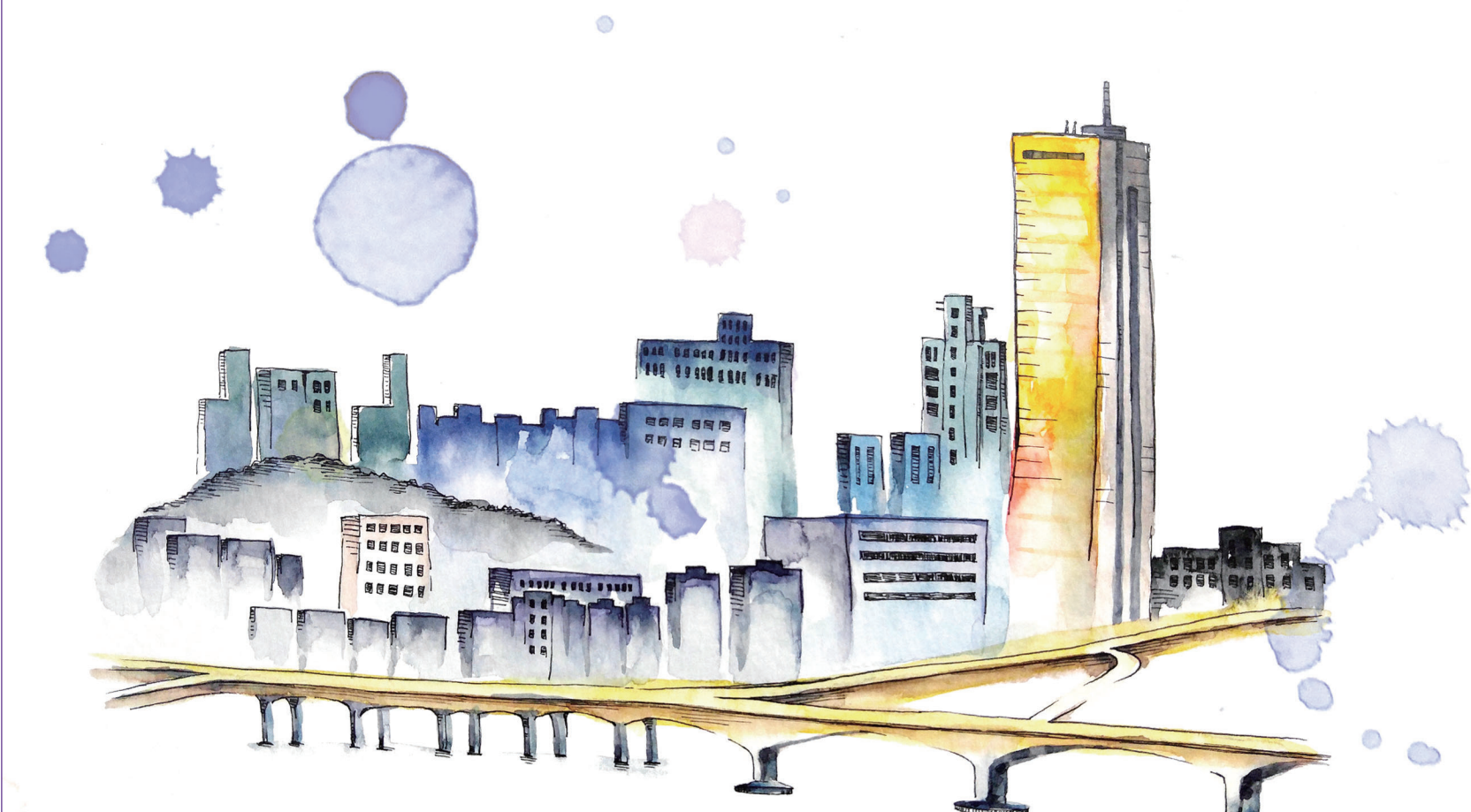
광주시의회 홍기월 의원(동구 1)은 13일 제315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지역 장애인 지원에 대한 일련의 행정이 광주정신과 호흡하며 세심하고, 촘촘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의원이 제시한 한국장애인총연맹의 ‘2022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의 장애인 1인당 의료비 지원액은 3년 연속 하락한 9만6,000원 수준으로, 우수등급인 대전시 318만원과 비교해 33배 격차



를 보이고 있다. 특히 ‘보조기기 지원’의 경우 전국 평균 7.63점에 한참 못 미치는 5.62점에 그쳤고,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은 6.80점으로 전국 평균 8.69점에 비해 2점 가량 낮았다.

홍 의원은 “민주·인권·평화라는 광주정신에 부합하도록 장애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기자



단, 한채의 집을 짓더라도 내 집 짓는 정성으로
고객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담은 명품주거공간으로
삶의 프리미엄을 더해 온 기업, 골드클래스
그 기술과 정성으로 고객감동을 더해 나가겠습니다



행복 위에 지은 집!
GOLD CLASS

골드클래스

골드클래스(주) · 골드디움(주) · 골드종합건설(주) · 보광건설(주) · 보광종합건설(주)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01 (화정동) 골드클래스 ■ 문 의 : 062) 233-3999